

◇ 횡격막 탈장 및 횡격막 내번증의 임상고찰

손상태, 김병일, 정태열, 송동섭, 정원상, 강정호, 지행욱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 한양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실에서는 총 15례의 횡격막탈장증과 횡격막내번증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바 이다.

방법 : 대상환자는 15명으로 이중 8례는 횡격막탈장증 환자이었고 7례는 횡격막내번증 이었다. 본 교실에서는 탈장증과 내번증의 성별, 연령별, 원인별, 위치와 증상별, 치료와 합병증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 횡격막탈장증 환자는 총8명으로 1) 이중 남자가 6명, 여자가 2명이었다. 2) 연령분포는 7개월부터 39세까지로 평균연령은 23.4세이었다. 3) 외상성탈장은 5명으로 3명이 교통사고이었고 2명이 낙상이었다. 비외상성탈장은 3명으로 1례는 Bochdalek탈장, 1례는 식도열공탈장, 또한 1례는 횡격막의 weak point를 통한 탈장이었다. 4) 탈장위치는 좌측이 5례, 우측이 3례이었다. 5) 주증상으로는 호흡곤란과 흉통이고, 기타증상으로는 복통, 소화장애, 구토, 설사, 어지러움증 등이었다. 6) 치료는 8례 모두에서 direct closure하였고, 이중 비외상성 환자중 1례에서 횡격막탈장으로 과거에 타의원에서 수술한 경력이 있었다. 7) 수술후 합병증이나 수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횡격막내번증 환자는 모두 7명으로 1) 여자가 5명, 남자가 2명이었다. 2) 연령은 18세에서 68세로 평균연령은 39.5세이었다. 3) 위치는 좌측이 6명, 우측이 1명이었다. 4) 환자의 주증 상은 호흡곤란이었으며 그 외의 증상으로는 흉통, 기침, 객담 등이었다. 5) 치료는 5명에서 추역형성술[plication]을 시행하였고 2례에서는 수술하지 않았다. 비수술환자중 1례는 환자의 의식소실이 있었고 다른 1례는 기관지확장증 환자로 내번정도가 심하지 않아 증상이 경미하 여 수술하지 않았다. 6) 수술후 합병증이나 수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결론 : 수술은 개흉술로 좋은 시야를 얻을 수 있고, 수술의 치명율은 낮으며 수술후 경과는 매우 양호하다.

책임저자:강정호(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발표자:손상태(한양대학교 의과대학)